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 함께 스페인으로 출발

1월 10일 금요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한밤중에 잠이 깬 것 외에는 아주 잘 잤다. R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았는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어둠이 짙었지만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을 알겠고 찬바람이 불고 있는지 스산한 가운데 멀리서 고양이 우는 소리 외에는 온 세상이 조용했다. 오늘 오후 3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함께 스페인으로 간다. 나는 R이 깨지 않도록 가만히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런던의 새벽을 맞이했다.



다. 상자 뚜껑을 살며시 열어 보았다. 조그맣게 접힌 연보라색 종이 쪽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걸 내가 얘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는 엄마와 나의 추억들이야. 쪽지 하나에 기억 하나, 엄마 나이 숫자만큼 쪽지를 써서 넣었어!” 딸의 기억 상자! 나는 너무 놀랐다.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감격했다. 이렇게 귀한 생일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스페인 여행의 첫날을 힘차게 여는 멋진 선물이었다.

아침 식사 후 집에 돌아와 짐을 마저 싸고 우리는 일찌감치 공항으로 향했다. 오늘은 히드로우 공항이 아니고 스탠스테드(Stansted)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곳까지 먼저 가야한다. 튜브로 연결이 잘 되지만 큰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을 헤매기 싫어서 우버를 타고 리버풀 스트리트 기차역(Liverpool Street Station)까지 바로 가기로 했다.

런던 한복판에 위치한 리버풀 스트리트 기차역은 유명한 빅토리아, 세인트 판크라스 기차역과 함께 런던의 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차역이다. 이용객 숫자상으로는 영국 3위라고 하며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가는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 열차의 시종착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 티켓을 사서 마침 플랫폼에 들어 와 있는 열차에 무사히 탑승했다. 나는 19라운드, R은 학생이라 12라운드. 목적지까지 약 50분 걸릴 것이라고 한다.

스탠스테드 공항에 일찍 도착한 우리는 비행기가 연발이라 오래 기다린 끝에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마드리드 행 라이언어(Ryanair) 비행기에 탑승했다. 밖으로 걸어 나가 비행기에 오르니 스페인 승무원들이 맞아 주었다. 오랜만에 스페인어를 듣는데 멕시코 억양 스페인어보다 훨씬 빠르고 리드미컬하다. 오후 3시 35분 이륙. 나는 시차 때문에 몹시 졸렸고 R은 어젯밤 일하느라 잠을 못 잔 까닭에 우리는 벌써 졸고 있었다. 잠이 들면서 내려다 본 영국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평평하고 완만하며 온통 푸른 모습이었다.

R은 7시 30분쯤 일어났다. 새로 이사 온 동네 바로 앞에 리전시 카페(Regency Cafe)가 있어서 우리는 오랜만에 그리로 아침을 먹으러 갈 계획이었다. 가기 전에 짐을 대충 싸기로 했다. 들어서 큰 가방 하나만 체크인하고 들어서 캐리 온 하나씩만 들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무게가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짐을 싣 후에는 느긋하게 걸어서 리전시 카페로 향했다. R은 무언지 모르지만 네모난 직사각형 종이 상자를 들고 따라왔다.

2017년에 왔었던 리전시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고 천둥 고함을 치는 작은 아줌마가 아직도 오더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워서 웃음이 나왔다. 우리는 각자 풀 잉글리시(Full English)를 먹었다. 계란, 콩, 해시 브라운, 토마토, 소시지, 베이컨, 블랙 푸딩에 토스트와 여전히 진하고 뜨거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까지 완전히 푸짐한 세트였다. 그런데 넘치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배가 너무 불러 다 먹지를 못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다 먹었는지 모르겠다.

아침을 다 먹고 나니 R이 집에서부터 들고 온 종이 상자를 내게 주며 ‘생일 축하해, 엄마!’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다. 나는 무어냐고 물었다. R은 계속 웃으면서 열어 보라고 한

메디케어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으로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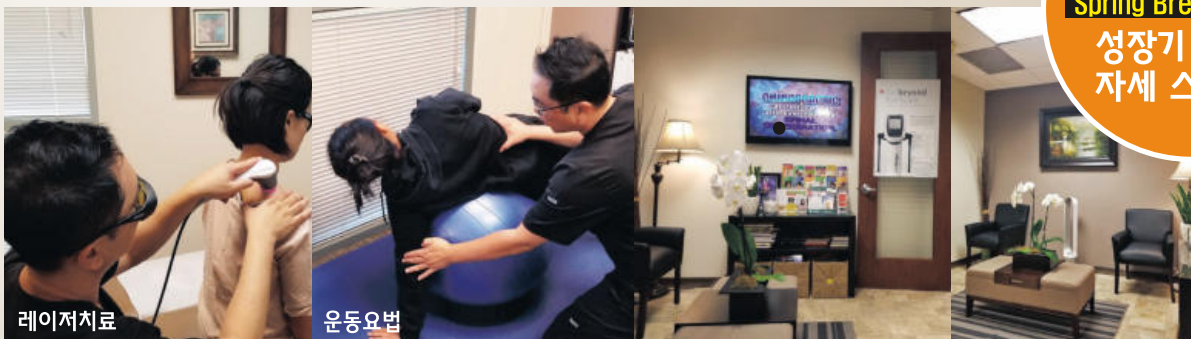


www.yoon-chiro.com

윤원일 알바인 척추신경 YOON FAMILY CHIROPRACTIC

전문 진료 및 치료 분야

- 카이로 프랙틱 교정
- 물리치료 및 마사지
- 통증 치료
- 레이저 치료
- 운동요법 및 스트레칭
- 두통 및 뒷목 당김
- 목, 허리, 등 통증
- 척추 측만증
- 어깨, 팔, 다리 통증
- 만성피로
- 학생 및 직장인 자세 교정
- 아이들 자세 및 걸음걸이 교정
- 교통사고 후유증
- 산전후 통증
- 인바디



레이저치료

운동요법

봄방학 스페셜
Spring Break Special
성장기 청소년
자세 스크리닝



척추신경과 전문의 윤원일
Dr. Wonil Yoon D.C.

- 각종 보험(PPO)
- 여행자 보험
- 학생보험
- 자동차 보험
- 무보험자용
- Cash Plan

949-769-3623
3500 Barranca Parkway Suite 325
Irvine, CA 92606

- B.A., Psychology and Social Behavior (Specialized in Clinical Psychology)
- University of Irvine
-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Health Science
- Board of International Chiropractic Association
- Board of California Chiropractic Association
- CH 18 건강정보 다수출연, 우리신문 컬럼 다수개재